

Art

아트인컬처
December 2014

Special Feature /
한국의 회화 13인×13인
Matching & Mapping

Abroad/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Market/
런던 Frieze, 파리 Fiac

Theme/
독립 출판, 세계 지형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Essay/
단색화 '촉각적 보기'

박미나 → 이상훈

프로그래밍 혹은 (재)구축

*이상훈을 처음 알게 된 건 올 6월 최정운, 안대웅 큐레이터가 기획한 커먼센터의 <청춘과 잉여> 전시의 준비 과정에서이다. 199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작가와 현재의 젊은 작가 중 비슷한 주제와 고민을 다루는 작가를 짝을 이뤄 보여 준다는 이 전시 기획에서, 그들이 나와 짝을 지어 준 이가 이상훈 작가였다. 각자의 작업을 보여 주는 것 외에 공동 작업, 공동 주제 또는 어떤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최정운과 나는 이상훈을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성산동 3층 작업실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도형이 그려 있는 A4용지가 줄 맞춰 한쪽 벽에 나란히 걸려 있고, 빼곡히 뭐라 쓰여 있는 흰색 포스트잇과, 전지 사이즈의 갱지와 더 큰 흰 종이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다양한 부호, 기호, 암호와 같은 글들이 더 많이 적혀 있었다. 또한, 골든 회사 물감이 화방에서처럼 회사 캐비닛 안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고, 맞은편 벽엔 붓, 볼펜과 다른 필기구, 아직 조립이 되지 않은 캔버스 틀 그리고 캔버스 틀을 만드는 전기톱과 도구가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색색의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는 미술 관련 책도 가지런히, 올드 홀랜드 물감들은 제 박스에 일렬로, 작업 노트는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노트에, 책등엔 작성 기간과 순서를 매겨 1번부터 23번까지 일렬로 책장에 꽂혀 있었다. 내 작업실에 오는 사람도 이런 느낌일까? 내 작업실도 하얗긴 하다. 일렬로 정리되어 있고, 작업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한쪽 벽에 20개로 나뉜 벽장 칸에 색깔 별로 구분 지어 가지런히 놓인 많은 양의 물감이 먼저 보이기는 한다. 작업에서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가는 재료를 대하는 태도나 작업실을 정리, 정렬하는 방법도 비슷할 수 있겠다(?). 최정운 큐레이터는 “예술의 종언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적 미디엄을 (재)창안하려는 박미나와 게임의 세계관 자체를 (재)구축하는 일종의 ‘설계자-프로그래머’ 이상훈”이라고 둘을 비교 설명한다.

회화는 무엇이고, 회화 영역의 윤곽은 어디까지이며, 회화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무엇일까? 회화는 예술적 미디엄인가? 회화의 (재)구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능한 것인가? 회화에 대한 비평적 접근은 가능한 것일까? / 박미나



위 · 박미나 <12 Colors I>
린넨에 유채
각 27.3×27.3cm(12) 2013
아래 · <12 Colors III> 린넨에
유채 각27.3×27.3cm(12)
2013